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내가 좋아하는 법구

수시로 자신 비취보는 '거울'

부처님의 말씀은 불자들에게 바른 삶의 길을 비추주는 거울이다. 불자라면 자신의 생활에 등불이 될 한 구절의 법구를 가슴에 지니고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교계 내외의 명사들은 어떤 법구를 가슴에 새기고 있을까.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서정주 <시인>

拈花微笑(염화미소). 부처님과 가슴이 마음과 마음으로 주고 받는 대화의 모습. 그 '말없음'의 세계야말로 수다스럽고 번잡한 우리 세상을 찬란한 증생계로 만들어 가는 경지가 아니겠는가. <전동복>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원망으로써 원망을 갚으면 마침내 원망은 쉬어지지 않는다. 오직 함음으로써 원망은 쉬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법구경>



이기영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歸一心源(귀일심원) 饒命衆生(요익중생)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 널리 중생에게 이익을 주라. <금강삼매경론>



김지건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회경경 도리를 터득하면 병왕이 푸른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지상을 내려다 봄과 같이 상쾌할 것이다. 그러나 산에서 사는 작은 새는 숲속을 의지하고, 송사리에는 여울에 살면서도 편안하니 어느 한쪽도 버릴 것이 없다. <회경경소>



송석구 <동국대 총장>

若以色見我(약이색견아) 以音聲求我(이음성구아) 是人行道(사인행사도) 不能見如来(불능견여래) 부처님은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청정하면 그것이 곧 부처이다. 밖에서 부처를 구하지 마라. <금강경>



홍사중 <조선일보 고문>

平常心是道(평상심시도) 조주가 남전에 불기를 '어떤 것이 도인가' 하니 남전이 대답하기를 '평상의 마음이 도이다.' <조주록>



김종규 <삼성출판사 회장>

보살은 이웃을 이롭게 하면서도 '나'와 '남'이라는 생각, 배운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재물도, 보시하는 물건도 보지 않고, 받는 이도, 복밭도, 업도 과보도 그 결과도 보지 않는다. <회경경>



정재철 <민자당의원>

雖多難經(수다승경) 不難可益(불해하익) 解一法(해일법구) 行可獲道(행가득도) 아무리 많은 경전 외우더라도 뜻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이익 있소라. 단 한 구의 법을 알아도 그대로 행하면 깨달음을 얻으라. <법구경>



주양자 <민자당의원>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 만약 삼세의 모든 법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자성을 살펴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지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회경경>



문희웅 <명성여고 교장>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無所住) 마음을 내라. 집착을 떠나 無心으로 대상을 보면 그 대상은 나와 일체가 되고 모든 사물은 참 모습 그대로 보일 것이다. <금강경>



김정환 <동대부고 교장>

心即是佛(심즉시불) 마음이 곧 부처이다. 모든 중생의 마음이 부처이니 수행정진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이입사행론>



강부자 <민자당의원>

항한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 뉘은 지푸라기에는 비린내가 난다. <아함경>



강우방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이것이 있음에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각에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음에 말미암아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 <緣起法頌>



이상범 <시인>

"잘 덮인 지붕에는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이 잘된 마음에는 탐욕의 손길이 스며들지 않는다." 선과 악이 둘이 아닌 이치를 설명한 말씀. <법구경>



전창열 <변호사>

몇 생을 닦지 아니하고 헛되이 주야를 보냈으며, 열마나 살릴 것인 몸인데 일생을 닦지 아니 하는가? 몸은 반드시 마침이 있으리니 후신을 어찌하라. 급하지 아니하며 급하지 아니한가. <발심수행장>



전웅찬 <청량리경찰서장>

平常心 即 佛心(평상심 즉 불심) 바로 열집도 마음 없으면 발길이 안가지만 천만리 먼데라도 마음있으면 달려가듯 답답할 때 마음의 질에서 부처님 뜻을 헤아려 보는 평소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을 알아야 하겠다. <전동복>



이은연 <중앙일보 국장>

體露金風(체로금풍) 법거벗은 몸이 금바람. 탐욕, 집념을 다 털어낸 상태가 되면 본래의 인간으로 돌아간다. <법구경>



한기호 <주간신문협회 회장>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 된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형체를 따르듯이. <법구경>



박동기 <W.F.B.한국본부 회장>

若人靜坐一須臾(약인정좌일수유) 勝造恒沙七寶塔(승조항사칠보탑) 사람이 잠시동안 만이라도 고요히 앉아 있다면 그것은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의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더 낫다. <반주삼매경>



김정자 <문화일보 논설위원>

부처님 고상라극 어느 숲에 가 타탈리 나무 아래서 선정에 드니, 숲의 신 바람이 타탈리 꽃잎 흩날리며 부처님께 공양하네. <잡아함경>



박세일 <청외대 정책기획수석>

無有淨法(무유정법) 淨法이란 법을 더럽히는 죄의 때가 없는 청정함을 뜻한다. 평상의 마음을 如法하게 하면 '정법'이 따로 없다는 것. <회경경>



민희식 <한양대 교수>

너희들은 삼계(三界)의 불타는 집에 있기를 좋아하지 말며, 누추한 빛 소리 냄새 맛 부딪침을 탐내지 말라. 만일 탐내고 애착하면 곧 불에 타게 되느니라. 너희들이 삼계에서 빨리 나오면 마땅히 청문이나 벽지불 또는 불승을 얻으리라. <법화경>



송춘희 <백련장학회 회장>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참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따라 바람따라 살다가 가라하네. <나옹선사 계승>



이계진 <방송인>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욕망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욕망이 없는 이에게 드리는 보시는 큰 가르침을 가져오리라. <법구경>



이정부 <불교TV 아나운서>

나의 입은 청정한 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 깨끗이 하여 해탈케 하나니, 모든 사람은 귀하고 천한 것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경집>



김대성 <문화일보 문화1부장>

물에 병없길 바라지 마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病苦로써 양약을 삼으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의롭고자 하면 의리를 삼게 되나니 순결함으로써 사귀를 길게 하라. <보왕삼매론>



이광한 <LG팀 감독>

일을 피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다. <보왕삼매론>



정찬주 <소설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흉탄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소의 똥처럼 혼자서 가라. <숫타니파타>



박재동 <시사만화가>

누구든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너도 옛날엔 그랬느니라. 어느 누구라도 다 잘 대하고 미워하지 마라. 언젠가 한 때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느니라. <법구경>



F.테데스코 <세종대 교수>

죽음의 왕(열라대왕)에게 보이지 않으려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숫타니파타>



조영환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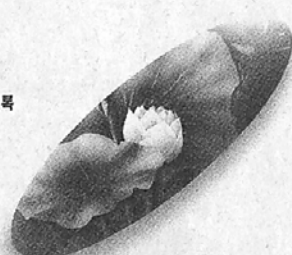
平常心 不動心(평상심 부동심) 평상심은 마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평상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도 이길 수 있고 후회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 평상심을 지키는 것이 부동심이다. <전동복>



김태곤 <가수>

無量劫劫 即一念(무량겁겁 즉일념) 一念即是 無量劫(일념즉시 무량겁) 무변의 원대한 겁이라 해도 내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 내 마음의 한 생각이 무량겁을 담고 있다. <의상대사 법성계>

오소 라즈니쉬의 명상강의록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42장경

황광우·이경옥 옮김

성어출판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붓다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잠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 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아파 디포 브하바(apra deepo bhava).....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 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소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 도서명 / 42장경 1권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권 삶의 해면에서 모은 조약돌
- 저·역자 / 오소 라즈니쉬(Osho Rajneesh)·황광우/이경옥
- 판 형 / 신국판/ 각권 452쪽 내외
- 가격 / 각권 7,500원
- 발행일 / 1권 1995년 4월 20일 2권 1995년 5월 10일
- 발행처 / 도서출판 성하

전화 778-6826~7, 팩스 778-6828